



# Brief

발행일\_ 2014. 5. 26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정기택

보건산업브리프 Vol. 126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 한-미 FTA 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 소 영

### I 배경 및 목적 ...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 증가 요인은 「FTA 非수해 품목(K(무관세))」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입 증가 요인은 「FTA 수해 품목」중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의 수입 증가가 기인하여 FTA 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을 맞아 보건산업의 對미국 수출입 성과를 분석함
- 한편, 단순 교역액 비교로 FTA의 효과를 가늠하는 것은 다음의 한계가 존재함
  - FTA의 체결 목적인 상품부문 관세절감 효과가 누락되어 분해의 오류<sup>1)</sup>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품목에는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으로 FTA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 품목도 다수 존재함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절감이 우리나라 보건산업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II 분석방법 ...

- 자료 및 대상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월별 수출입 통계
  - 한-미 FTA 협정문<sup>2)</sup>의 대한민국 양허표 및 미합중국 양허표
  - HS코드 10단위의 보건산업 품목 679개 대상
- 한-미 FTA 발효 후 우리나라 對미국 2년차('13.4월~'14.3월) 보건산업 교역액을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및 발효 후 1년차('12.4월~'13.3월) 교역액과 비교·분석함

1) 분해의 오류: 전체로는 참이나 그것을 분해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거짓이 되는 것  
2) 한미 FTA 공식사이트 : <http://www.fta.go.kr/korus>

- 한-미 FTA 관세철폐 단계별 우리나라의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를 분석함
  - 보건산업 품목 679개 중 한-미 FTA 발효로 관세 절감된 품목을 「FTA 수혜 품목」,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을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으로 구분함
  - 「FTA 수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단계에 따라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D(5단계 균등철폐), G(10단계 균등철폐)로 구분함
  - 수출 효과에 대해서는 미합중국 양허표를 적용<sup>3)</sup>, 수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양허표를 적용하여 분석함
- 「FTA 수혜 품목」중 수출입 규모가 큰 주요 보건산업 품목에 대하여 관세변화가 각 품목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III 분석결과 ...

#### (1) 한-미 FTA 발효 후 보건산업 교역 동향

- 한-미 FTA 발효 후 2년차('13.4월~'14.3월)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7.6억 달러로 발효 전('11.4월~'12.3월) 대비 11.0% 증가, 수입은 27.9억 달러로 8.0% 증가
  - 동 기간 전산업의 수출은 발효 전 대비 5.2% 증가, 수입은 8.3% 감소
  - 무역수지는 발효 전 대비 6.8% 감소한 20.3억 달러 적자로 무역역조 현상 심화
  - 보건산업별 수출은 발효 전 대비 의약품 20.5% 증가, 의료기기 1.2% 감소, 화장품 71.3% 증가, 수입은 의약품 25.4% 증가, 의료기기 14.0% 감소, 화장품 27.5% 증가
- 발효 1년차('12.4월~'13.3월) 대비 보건산업 수출은 6.6% 증가, 수입은 1.6% 증가로 한-미 FTA 이후 보건산업 교역은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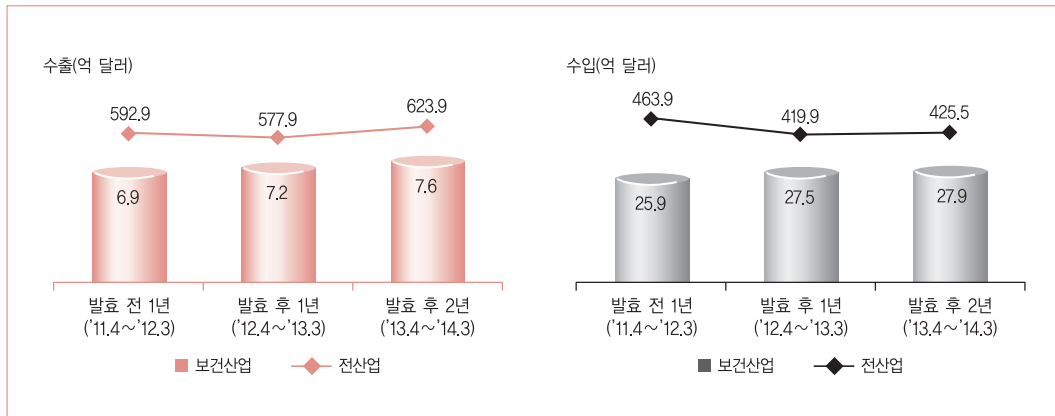
〈표 1〉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분	산업구분	발효 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YoY		YoY	발효 전 대비
수출	전산업	592.9	577.9	△2.5	623.9	8.0	5.2
	보건산업	6.9	7.2	4.2	7.6	6.6	11.0
	의약품	1.7	1.9	8.7	2.1	10.9	20.5
	의료기기	4.5	4.5	△1.0	4.5	△0.2	△1.2
	화장품	0.6	0.8	28.3	1.1	33.5	71.3
수입	전산업	463.9	419.9	△9.5	425.5	1.3	△8.3
	보건산업	25.9	27.5	6.3	27.9	1.6	8.0
	의약품	11.0	12.6	14.5	13.7	9.5	25.4
	의료기기	11.6	11.3	△3.2	10.0	△11.2	△14.0
	화장품	3.3	3.7	12.5	4.2	13.3	27.5
무역수지	전산업	129.0	158.0	22.5	198.5	25.6	53.9
	보건산업	-19.0	-20.3	△7.0	-20.3	0.2	△6.8
	의약품	-9.2	-10.7	△15.6	-11.7	△9.3	△26.3
	의료기기	-7.1	-6.8	4.6	-5.5	18.4	22.2
	화장품	-2.6	-2.9	△8.7	-3.1	△7.4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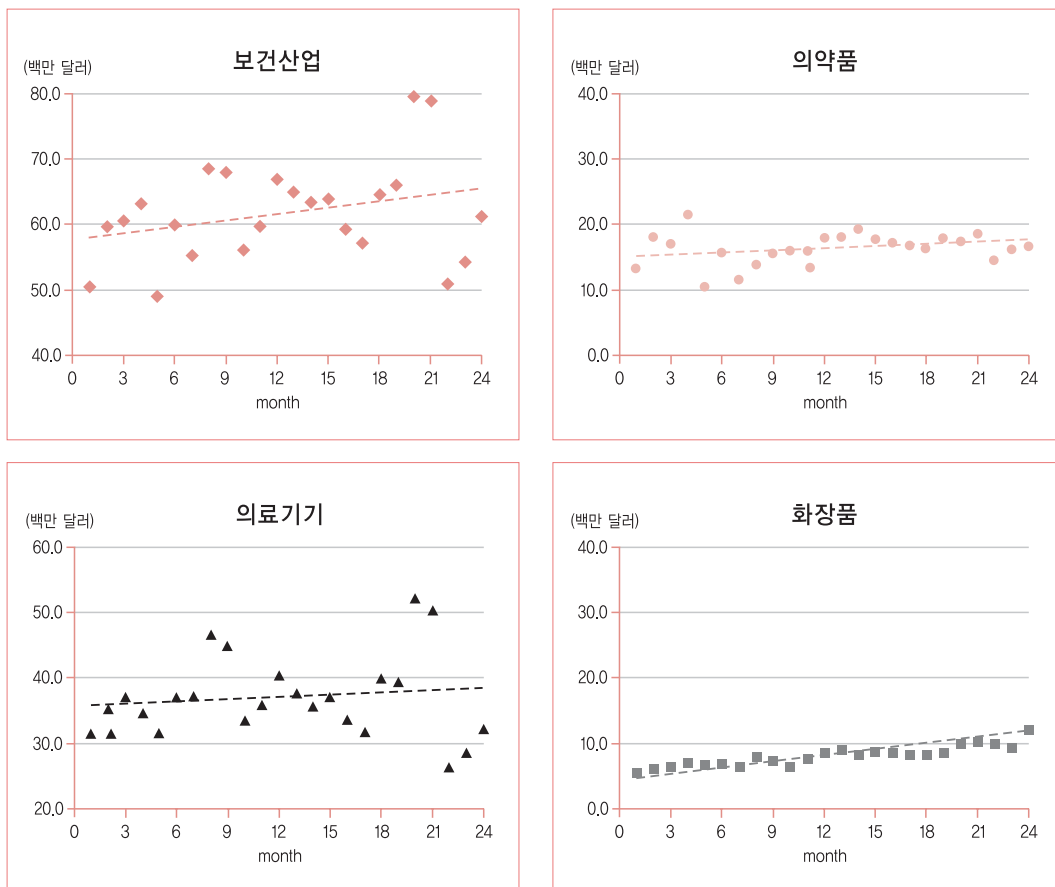
주 : YoY는 전기 대비 증감률(%), 발효 전 대비는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증감률(%)

3) 미합중국 양허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對미국 수출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對한국 수입 데이터로 분석해야하지만,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8단위 HS코드로 분석할 경우 발생하는 수치의 과대계상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對미국 수출 데이터로 대체하여 분석함



[그림 1] 한-미 FTA 발효 전후 對미국 교역 현황

- 한-미 FTA 발효 후 24개월('12.4월~'14.3월) 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 추세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수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보건산업도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임
  - 특히, 화장품의 추세선 기울기는 0.19로 의약품, 의료기기에 비해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결정계수 ( $R^2$ )가 0.823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여 3년 차 화장품 수출은 25.3% 증가한 1억 3,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2년 차 1억 1,100만 달러)



[그림 2] 한-미 FTA 발효 후 24개월간('12.4월~'14.3월) 보건산업별 수출 추이

주 : 각 표식은 실제 교역액을 나타내며, 점선은 선형 회귀 추세선을 나타냄

① 한-미 FTA 발효 후 24개월('12.4월~'14.3월) 동안 의약품, 화장품 수입 추세선은 우상향 하며 수입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의료기기는 우하향하며 감소 추세를 보여 전체 보건산업은 보합세임

- 의료기기 수입은 FTA 발효 1년 차('12.4월~'13.3월)에 발효 전 동기간 대비 3.2% 감소했으며, 2년 차('13.4월~'14.3월)에도 1년 차 대비 11.2%가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추세임



[그림 3] 한-미 FTA 발효 후 24개월간('12.4월~'14.3월) 보건산업별 수입 추이

주 : 각 표식은 실제 교역액을 나타내며, 점선은 선형 회귀 추세선을 나타냄

## (2)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 효과

- 한-미 FTA 발효 2년 차('13.4월~'14.3월)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의 수출은 발효 1년 차('12.4월~'13.3월) 대비 9.1% 증가,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18.7% 증가
- 동 기간 「FTA 수혜 품목」 수출은 발효 1년 차('12.4월~'13.3월) 대비 1.4% 증가한 반면,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2.8% 감소
  - D(5단계 균등철폐)는 FTA 발효 즉시 수출효과가 나타난 반면, A(즉시철폐)는 발효 2년 차에 전기('12.4월~'13.3월) 대비 5.9% 수출성장
  - C(3단계 균등철폐)는 FTA 발효 후 2년 연속 수출 감소
-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 증가 요인은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보건상품 679개 중 기존 무관세 품목이 443개(65.2%)에 달하는 반면, 「FTA 수혜 품목」의 개수는 적어 FTA가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측

〈표 2〉 한-미 FTA 양허단계별 對미국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월	총수출	보건상품 (679개)	FTA수혜 품목				
				FTA 非수혜품목 K(443개)	(236개)	A(170개)	C(58개)	D(8개)
2011	4~6	15,234.9	182.5	115.6	66.9	50.4	15.1	1.4
	7~9	13,767.5	157.1	102.6	54.5	42.4	10.3	1.8
	10~12	14,606.8	183.1	115.5	67.6	50.5	15.8	1.3
2012	1~3	15,677.4	166.2	110.7	55.6	39.4	14.7	1.4
발효 전 1년		59,286.4	688.9	444.4	244.6	182.7	55.9	5.9
2012	4~6	15,011.7	170.8	110.9	59.9	44.0	11.6	4.2
	7~9	13,727.7	172.4	119.5	52.9	39.7	10.1	3.1
	10~12	14,107.7	191.9	131.8	60.1	49.7	9.3	1.1
2013	1~3	14,942.3	182.7	121.2	61.5	49.2	9.4	2.9
발효 후 1년		57,789.5	717.7	483.4	234.4	182.7	40.4	11.3
YoY		△2.5	4.2	8.8	△4.2	△0.0	△27.8	90.8
2013	4~6	16,384.4	192.4	131.7	60.7	49.3	9.2	2.1
	7~9	14,861.1	181.2	129.5	51.7	42.1	7.6	2.0
	10~12	15,864.7	224.9	151.8	73.1	59.6	10.5	3.0
2014	1~3	15,282.0	166.3	114.2	52.1	42.4	6.3	3.4
발효 후 2년		62,392.2	764.9	527.3	237.6	193.4	33.7	10.5
YoY		8.0	6.6	9.1	1.4	5.9	△16.6	△7.3
발효 전 대비		5.2	11.0	18.7	△2.8	5.9	△39.8	76.9

주 1) YoY는 전기 대비 증감률(%), 발효 전 대비는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증감률(%)

2) K(무관세),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D(5단계 균등철폐)

### (3)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보건산업 수입 효과

- 한-미 FTA 발효 2년 차('13.4월~'14.3월)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의 수입은 발효 1년 차('12.4월~'13.3월) 대비 2.6% 증가,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5.0% 증가
- 동 기간 「FTA 수혜 품목」 수입은 발효 1년 차('12.4월~'13.3월) 대비 1.1% 증가, 발효 전 1년 ('11.4월~'12.3월) 대비 9.5% 증가
  - A(즉시철폐)는 FTA 발효 즉시 수입이 84.0% 증가한데 이어 2년 차에도 1.9% 증가하며 관세 절감에 따른 수출효과가 크게 나타남
  - C(3단계 균등철폐)는 발효 전 대비 수입이 2.9% 증가하였으며, G(10단계 균등철폐)는 17.7% 증가
  - D(5단계 균등철폐) 및 G(10단계 균등철폐)는 품목 개수가 적어 기타 요인에 따라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FTA 관세절감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입 증가 요인은 「FTA 수혜 품목」중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의 수입 증가가 크게 기인하여 FTA 관세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3〉 한-미 FTA 양허단계별 對미국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년도	월	총수입	보건상품 (679개)	FTA 非수혜품목 K(149개)	FTA수혜 품목 (530개)	FTA수혜 품목			
						A(395개)	C(115개)	D(10개)	G(10개)
2011	4~6	12,207.0	637.3	193.6	443.7	23.7	323.6	33.7	62.7
	7~9	11,582.7	625.2	223.2	402.0	25.3	291.3	19.8	65.6
	10~12	10,783.1	643.0	224.0	419.0	23.5	307.7	17.7	70.2
2012	1~3	11,817.5	681.9	234.0	447.9	42.9	316.0	21.0	67.9
발효 전 1년		46,390.4	2,587.3	874.8	1,712.6	115.4	1,238.6	92.1	266.4
2012	4~6	11,541.7	691.4	240.4	451.0	51.0	303.3	25.7	71.0
	7~9	10,113.0	704.0	233.9	470.1	54.1	304.9	26.3	84.8
	10~12	9,868.7	673.0	209.5	463.5	52.6	298.8	24.8	87.4
2013	1~3	10,467.5	681.4	211.5	469.9	54.7	328.6	16.2	70.5
발효 후 1년		41,990.9	2,749.9	895.3	1,854.6	212.4	1,235.5	93.0	313.7
YoY		△9.5	6.3	2.3	8.3	84.0	△0.2	0.9	17.7
2013	4~6	10,376.6	708.5	264.8	443.7	53.9	303.5	17.0	69.2
	7~9	9,999.6	701.8	224.7	477.0	52.9	334.7	14.7	74.8
	10~12	10,668.2	712.3	205.0	507.3	53.3	345.7	22.8	85.5
2014	1~3	11,502.2	670.6	224.1	446.6	56.3	290.4	15.7	84.1
발효 후 2년		42,546.7	2,793.2	918.6	1,874.6	216.4	1,274.3	70.3	313.6
YoY		1.3	1.6	2.6	1.1	1.9	3.1	△24.4	△0.0
발효 전 대비		△8.3	8.0	5.0	9.5	87.5	2.9	△23.7	17.7

주 1) YoY는 전기 대비 증감률(%), 발효 전 대비는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증감률(%)

2) K(무관세),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D(5단계 균등철폐), G(10단계 균등철폐)



#### (4)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FTA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對미국 수출 품목은 ‘기타 방사선 진료장치 (9022.90.1090)’ 로 관세 즉시철폐로 인하여 발효 전 대비 657.1% 증가
  - 「FTA 수혜 품목」 중 對미국 수출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방사선 진료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2.90.9000)이나 발효 전 대비 10.1%가 감소
  - 「FTA 수혜 품목」 중 수출규모 상위 품목의 대부분은 A(즉시철폐)에 해당함
  - 콘택트렌즈(9001.30.0000)는 C(3단계 균등철폐)에 해당하는 수출규모 상위 품목이나 발효 전 대비 55.1% 감소

〈표 4〉 「FTA 수혜 품목」 중 對미국 수출규모 상위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명	산업	철폐 유형	발효 전 1년 ('11.4~'12.3)	발효 후 2년 ('13.4~'14.3)	
						발효 전 대비
9022.90.9000	방사선 진료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	A	42.2	37.9	△10.1
2918.29.9090	기타 의약품	의약품	A	25.5	29.2	14.7
9022.90.1090	기타 방사선 진료장치	의료기기	A	3.0	22.9	657.1
3912.39.9000	기타 원료의약품	의약품	A	11.3	15.8	39.7
9602.00.1000	젤라틴캡슐	의약품	A	5.5	12.2	123.9
9001.50.1000	시력교정용 안경	의료기기	A	10.2	10.3	0.5
3503.00.1010	젤라틴	의약품	A	7.5	8.7	15.8
9404.29.0000	기타 재료로 만든 매트리스 서포트	의료기기	A	3.3	5.7	72.6
9001.30.0000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C	11.6	5.2	△55.1
2917.12.1000	아디프산	의약품	D	0.8	4.7	462.8

주 1) 발효 전 대비는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증감률(%)

2)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D(5단계 균등철폐)

- FTA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對미국 수입 품목은 ‘기타 원료의약품 (2931.90.9099)’ 으로 관세 즉시철폐로 인하여 발효 전 대비 398.6% 증가
  - 「FTA 수혜 품목」 중 對미국 수입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기타 완제의약품(3004.90.9900)’ 으로 발효 전 대비 15.5%가 증가
  - 「FTA 수혜 품목」 중 수입규모 상위 품목의 대부분은 C(3단계 균등철폐)에 해당하나 대부분 발효 전 대비 감소(기타 완제의약품(3004.90.99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3004.90.1000) 제외)

〈표 5〉 「FTA 수혜 품목」 중 對미국 수입규모 상위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명	산업	철폐 유형	발효 전 1년 ('11.4~'12.3)	발효 후 2년 ( '13.4~'14.3)	
						발효 전 대비
3004.90.9900	기타 완제의약품	의약품	C	315.1	363.9	15.5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화장품	G	207.0	221.9	7.2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의료기기	C	197.4	124.2	△37.1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	C	77.8	57.6	△26.0
2931.90.9099	기타 원료의약품	의약품	A	9.1	45.3	398.6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	C	66.1	41.8	△36.8
9018.39.2000	카테터	의료기기	C	64.7	33.0	△49.0
9001.30.0000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C	36.9	31.9	△13.5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의약품	C	13.4	27.5	105.8
9022.90.9000	방사선 진료장치의 부분품과 부속품	의료기기	C	38.4	27.4	△28.6

주 1) 발효 전 대비는 발효 전 1년('11.4월~'12.3월) 대비 증감률(%)  
 2) A(즉시철폐), C(3단계 균등철폐), G(10단계 균등철폐)

## IV 결 론 ...

- 한-미 FTA 발효 2년 차('13.4월~'14.3월)에는 K(무관세) 및 A(즉시철폐)의 수출이 1년 차 ('12.4월~'13.3월) 대비 증가한 반면, C(3단계 균등철폐)와 D(5단계 균등철폐)의 수출은 감소
  -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의 수출이 발효 전('11.4월~'12.3월) 대비 18.7% 증가한 반면,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은 2.8% 감소하여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 증가(11.0% 증가)에 FTA에 따른 관세 절감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한-미 FTA 발효 2년 차('13.4월~'14.3월) 보건산업 수입은 1년 차 대비 1.6% 수준으로 소폭 증가 하였으나, A(즉시철폐)의 對미국 수입이 발효 전 대비 87.5%로 크게 증가하여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단, A(즉시철폐)의 품목수는 395개로 74.5%에 해당하는데 반해 수입규모는 11.5%에 불과
  - 수입규모가 전체의 68.5%에 해당하는 C(3단계 균등철폐)에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가 반영 된다면 향후 對미국 수입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對미국 총수출이 1년 차에 전기 대비 4.2%, 2년 차에 6.6%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對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영향 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하였음을 의미함
- 한-미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함

- 집필자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소영
- 문의 : Tel. 043-713-8294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http://www.khiss.go.kr)